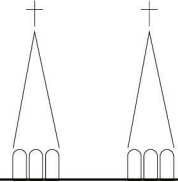


끈질긴 소망으로 나아가라 Relentless Hope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시 42:5)



강사 김하나 목사

끈질긴 소망으로 나아가라 (시 42:5)

성경적 소망을 장착하라(소망의 근거 =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소망에 대한 말씀을 보면 자칫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소망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어려움과 환난 중에서도 좋은 일들을 기대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말하자면 성경이 보여주는 소망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향한 기대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소망입니다.

낙관주의는 역사적으로 20세기 초반에 가장 팽배했습니다. 치명적인 전염병들이 정복되기 시작했고, 과학과 산업의 발전을 통해서 삶의 많은 부분들이 편리해졌습니다. 그런 발전 가운데 지식인들은 앞으로 인류가 번성하고 난관을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의 세계대전을 통해서 선과는 거리가 먼 인간의 추악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 가운데 스위스의 신학자 칼 바르트(Karl Barth)가 등장한 것도 바로 이런 맥락(context) 속에서였습니다. 인간의 선함과 위대함을 발견하고 기뻐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에게 바르트는 로마서를 통해서 인간의 죄성을 고발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전능하심과 절대적인 초월성을 다시 선포했습니다.

롬 3:10-12 기록된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롬 5:8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역사적인 낙관주의는 인간의 능력에 근거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잇나간 미래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신약적인 낙관주의는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적 소망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뛰어난 사람이라서 갖는 꿈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갖는 꿈이며 비전입니다.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끈질긴 소망으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삶을 버티고 견뎌낸 정도를 넘어서서 놀라운 열매를 맺은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의 탁월함(덕)은 여러 면에서 나타나지만, 그가 소망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래리 오스본(Larry Osborne)이 쓴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는 다니엘에게 주목할 만한 세 가지 성품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것이 소망과 겸손, 지혜라고 합니다. “성경적 소망은 세상에 맞설 용기를 준다.”라고 강조하면서 바벨론에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소망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당신의 소망을 의지하지 말고 소망의 근원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 찰스 스펄전(Charles Spurgeon)

롬 15:13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불신의 소망에 속지 말라

세상에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속임수가 있습니다. 한 해 미국에서만 무려 9,9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1,100조 원 이상의 기업 사기 피해액이 있다고 합니다. 개인들의 사기까지 합친다면 그 액수는 훨씬 더 커질 것입니다. 한 유명한 사기꾼이 자신만이 갖고 있는 규칙을 소개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무엇이든 기꺼이 내 주기를 원하는데, 무엇을 소망하는지만 알면 된다고 말합니다. 갈망하는 것이 있으면 다 속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권력을 소망하는 사람은 권력에 속고, 재물을 소망하는 사람은 재물에 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속지 않으려면 우리의 헛된 갈망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은, 영적인 것을 소망하는 사람은 그래서 세상에도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시 120:2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교회가 다른 것에 소망을 두면 우리도 다 속고 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하고, 복음을 소망해야 하고, 섬김을 소망해야 하고, 희생을 소망해야 합니다. 바른 소망을 갖는 존재가 진정한 존재의 목적과 가치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의 소망을 가로막는 존재는 세상만이 아닌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의 불씨를 꺼뜨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끈질김(Relentless)>의 저자 존 비버(John Bever)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갓 그리스도인이 된 장모님이 암에 걸렸던 일화를 소개합니다. 성공적인 수술 후에도 병원에서는 매우 비관적이었고, 담당의사는 앞으로 2~3년밖에 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분은 비록 신앙의 햇수는 적었지만 굳센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신앙의 멘토가 되는 분은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을 다 고쳐주시지는 않는다는 믿음으로 낮기를 소망하는 이분을 책망하며 화를 냈습니다. 결과적으로 비비어의 장모님은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고도 이후 30년이 훌쩍 넘도록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다.

우리가 믿음과 소망으로 나아가면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함께 박수 쳐주고 격려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상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소망을 비웃으며 조롱하는 사람들도 생겨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박수와 격려와 환호성 때문에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냉정한 현실 속에서도 끈질긴 소망을 갖는 이유는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을 먹으라

숨어 있던 생명도, 죽은 듯이 사라진 생명도 조건이 형성되면 다시 나타납니다. 봄이 되어 보이지 않던 뿌리가 올라오면서 수선화가 피는 것을 보십시오. 우리의 소망도 예수님과 연결될 때 반드시 다시 살아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좌절감과 절망감 가운데 나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소망을 함께 놓쳐버립니다. 그때 다시 예수님과 친밀하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각 나라에는 노동자들이 먹고 힘을 내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흑인들은 노예 시절에 먹었던 음식을 소울 푸드, 즉 영혼의 음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의 영혼에 힘을 주는 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허쉬피피라고 하는 튀긴 옥수수불, 감자와 콩을 요리한 것, 후라이드 치킨 등입니다. 우리에게도 소울 푸드가 있습니다. 해외 여행 중에 라면을 먹으면 속이 시원해집니다. 된장찌개나 김치찌개를 먹으면 참 행복합니다. 콩나물국에 밥을 말아서 먹으면 속이 편안합니다. 그저 먹고 좋은 것만이 아니라 맘이 편해지고 힘이 솟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소울 푸드, 즉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로 다시 소망을 갖고 일어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양식이 우리 안으로 들어갈 때, 숯불에 구운 떡이고 물 한 병이지만,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다시 사십 주야를 걸어 호렙산으로 갈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이 생겨납니다. 엘리야는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고 죽기를 구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먹이셨을 때 그는 다시 소망으로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왕상 19:5-8 로렘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와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사십 주 사십 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소망의 불을 밝히라

시 42:7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시편은 저자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끊임없이 받았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대부분 세 개의 상황 가운데 하나에 속해 있다고 합니다. 1. 환난의 시기 한 가운데 있는 상황 2. 환난의 시기를 갖 벗어난 상황 3. 환난의 시기를 곧 맞이할 상황

우리 인생에 환난과 고난이 멈추는 경우는 별로 없다는 뜻일 것입니다. 이때, 시편 저자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낮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지만, 밤에도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시 42:8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보다

소망의 사람들은 어둠과 환난, 즉 밤중에도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버림받은 듯한 좌절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의문 속에서도 예배하고, 좌절 속에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밤중에 찬양의 불을 밝히는 사람, 어둠 속에서 기도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시대가 건강에 얼마나 많은 관심이 있습니까? 그런데 건강을 얘기할 때, 밤에 무엇을 먹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밤에도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서 먹어야 하는 음식은 찬송이며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찬송과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을 때 우리의 소망의 불도 꺼지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성막에는 꺼뜨려서는 안 되는 불이 있습니다. 바로 밝히 켜놓는 등잔불입니다.

레 24:2-3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김람을 찢어낸 순결한 기름을 네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 돌리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꺼뜨려서는 안 되는 것이 기도의 등잔불입니다. 소망의 등잔불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 심지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등잔불을 정리해야 합니다. 어둠 속에서 기도와 찬송의 등잔불을 켜는 사람이 소망의 사람입니다. 사무엘상의 초반에는 몰락하는 엘리 제사장 집안의 이야기와 새롭게 등장하는 사무엘의 이야기가 대비되어 나옵니다. 이때 아직도 이스라엘에, 실로에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에 소망이 있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삼상 3:3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우리 교회와 가정에 비록 어두움이 있을지라도 기도와 찬송이 끊이지 않을 때 소망의 등불도 꺼지지 않습니다. 소망의 불을 밝히십시오. 기도하고 또 찬송하십시오.